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이제 얼마 있으면 고국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소식이 들려오겠군요.

이 곳 투르카나는 매일이 덥고 청명하답니다. 건기와 우기만 교차하다 보니 해가 바뀌어도 특별한 느낌이 없군요.

케냐는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집계를 보면 확진자가 10만2천명 이상, 사망자가 1795명이에요. 그렇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하여서 올해부터 모든 학교가 문을 열고 통행금지 시간도 단축되는 등 규제가 풀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숨은 감염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보건부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했는데 200만명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걸로 나왔거든요. 특히 나이로비는 3명 중 1명이 감염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저희는 돌아와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임에도 엄청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몸은 지치지만 너무 감사하답니다.

#### <식량지원>

케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4차례 (7차~11차) 식량 지원을 마쳤어요. 7차 (8개교회, 470명), 8차 (8개교회 1,156명), 9차 (7개교회 742명), 10차 (6개교회 877명)에 걸쳐 일인당 6~14키로씩 옥수수가루를 지급했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식량을 지원받고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합니다. 언제 도착할 지 모르는 수송차를 아침부터 나와 기다리는 사람들, 차를 보고 급하게 모여드는 사람들, 질서 정연하게 앉아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식량을 이고 흠먼지 나는 광야길을 가뿐히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행복했어요.



8차 나도펫교회



9차 나코리냥교회



10차 로통아리교회



10차 나야나에 양이칼라리오 교회



## <지붕교회 건축>

광야 나무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은 오랜 기도제목입니다. 이번에 어느 장로님 부부의 헌신으로 3곳에 지붕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어요.



성도들도 큰 기쁨 가운데 모래와 자갈을 모으고 물어 길어 오며 건축하는 내내 함께 하며 감사했습니다.

8번째 지붕교회: 모루아로트



9번째 지붕교회: 나푸티리오



10번째 지붕교회: 응이메투라나



응이메투라나는 교회건축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여 먼저 사진을 찍었어요. 지붕 끝부분에 마감재를 붙이기 전 모습이랍니다.

## <고아 아이들 소식>

코로나로 인해 9개월간 문을 닫았던 학교가 1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 동안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참 감사했지만 안타깝게도 두명의 여학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어떤 곳은 44%의 여학생이 임신으로 학교를 중퇴할 예정이라고 할 만큼 미성년자의 임신이 이곳에선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폴린 응이케노이(17세)



나크와메크위에서 식량 지원 후



대학진학의 꿈을 이룬 데이비드

## <그 외 소식들>

4개 교회 28명의 과부들에게 염소분양이 있었어요. 또 가져온 마스크와 전도용 수세미는 현지 교회 성도들과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보육원 5곳도 1월 초부터 잘 진

행되고 있고, 나레와 훈련생 숙소동도 많은 분들의 헌신과 중보기도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엄혹한 시기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동역해주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케냐 땅에도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 주시도록.
2. 주님의 도우심으로 식량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량이 공급될 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부어지도록. 형제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능력이 되도록.
3. 주님의 은혜로 또 다시 3곳에 광야지붕교회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건축이 순탄하기를. 교회마다 주님이 크게 힘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기를.
4. 코로나 전파에 대한 염려 때문에 타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교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음세미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기갈한 심령들마다 말씀이 생명수로 부어지도록. 강사로 섬길 현지 목회자들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5. 특별히 외롭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목자 되시도록.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6. 현지 동역자들과 저희 가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2021년 2월에 윤승주/김경희 드림**